



시민과 소통하며 동행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 펼쳐

군산시의회 제7대 후반기 의회가 첫 여성 박정희 의장을 중심으로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새롭게 변모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군산시의회는 '시민과 소통하며 동행하는 열린의정 군산시의회'를 의정목표로 그 어느 때보다 민생 현장을 찾아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노력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등 시민들과의 신뢰를 지키는 수준 높은 의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변화를 보였다. 특히 올 한해는 지난 7월에 제7대 후반기 원구성과 함께 24명의 의원들은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동분서주 민생을 챙기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온 열정을 기울여 왔다. 또한 시정 현안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각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와 비교시찰, 정책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비전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 2016년 의정활동 실적**
군산시의회는 88일간의 의사일정 동안 6번의 임시회와 두 번의 정례회를 개최했으며, 조례안 90건, 동의안 22건, 승인안 3건, 예산안 4건, 기타 26건 등 총 146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특히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시정 질문 2건과 5분 자유발언 51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결의)문 9건, 성명서 3건을 채택했으며, 의원 발의 조례안 28건을 발의하는 등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 민생행기행보'날**
지난 7월 제7대 후반기 원구성이 새롭게 정비되고, 24명의 시의원은 회기·비회기를 가리지 않고 민생현장을 살펴보는 현장중심의 의

안건 146건 처리 · 행정사무감사 203건 지적 성과
한중카페리션 항차 증편 축구 건의문 채택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 위한 도민 서명운동 펼쳐

정활동으로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의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손수 잡보기와 어깨띠를 두르고 대대적인 시민이용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군산지역 해운·항만·물류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산항과 중국 석도항을 잇는 한중카페리션 항차 증편 축구 건의문을 전체 의원이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재차 항차 증편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군산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마련 축구 건의문과 성명서, 울산 현대중공업 회장 면담, 국방방문 조선업 위기해결 협조 요청,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와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100만 명도민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지역

을 모색 하는 등 다각적인 교류활동을 했다. *** 2017년도 군산시의회 운영방향** 군산시의회는 지역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민생을 챙기고 보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의원들이 힘을 모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 변화하는 시민의식에 발맞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의정활동으로 지역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뜻을 존중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할 것이며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이다. 박정희 의장은 "2017년에도 시민에게 보다 다가갈 수 있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의원 상호간 화합과 소통으로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대변할 수 있는 참 심부름꾼으로서 시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의회를 만들어 살맛나는 군산을 건설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근 기자



군민과 소통 · 화합하는 내실 있는 의회 운영

제7대 부안군의의회(의장 오세웅)가 지난 16일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설 틈 없이 달려온 2016년 회기운영 및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부안의 발전을 위한 주춧돌 역할을 해 왔으며, 내부적으로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군민과 소통 · 화합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지난 1년간 군민을 위해 땀 흘린 부안군의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되짚어 본다.



◆ 민생관련 당면 현안문제 살피는 의정활동
부안군의의회는 두 차례의 정례회를 비롯해 8회의 임시회를 통해 총 110일 간의 회기 일정을 소화하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가축사육제한 조례, 교통봉사단체 지원 조례 등 조례·규칙 심의 79건, 예·결산 6건, 승인 및 결의안 등 기타 안건 17건 등 총 102건의 각종 안건을 처리하여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여했다. 또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 부안청차바물관 활성화 사업, 소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부안군 주요 사업현장 56개소를 방문하여 사업추진서 현안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효과적인 사

추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군민의 대변자로서 당면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각종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에 제출하였다.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 백지화 촉구,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 무효 규탄, 쌀값 폭락에 따른 대정부 규탄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동학농민혁명의 사상을 기리는 백산기념일을 국가기념일 제정을 건의해 부안정명 600주년 위상 제고에 노력하였다. **◆ 집행부 견제외 균형 조화 → 동반자적 관계 구축**

안건 102건 처리 · 주요 사업현장 56개소 방문
행감서 시정 ·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총 93건 제시
백산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 건의

을 제언했다. 또 5,000억에 달하는 2017년 예산도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감안해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다. 당초 제출된 4,952억 9,300만원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 복지증진, 농업 소득증대 등을 위한 예산 편성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35억 8,300만원, 특별회계 12억 5,000만원을 삭감해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해 낭비를 사전 예방했다. **◆ 전문성 확보 등 의정 역량 강화에 힘써** 부안군의의회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의정 역량 강화활동도 지속 추진하였다.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 의정연구실 내

분야별 전문도서를 활용한 정책연구활동, 이견대립 예방을 위해 의원 간 소통의원 간담회를 상시 운영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돕고 의정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썼다. 조례 입법, 예산·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심사기법에 대한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입법·법률고문을 활용한 자문을 활용해 의정수행능력을 배양해 나갔다. 또 타 시·군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역현안 공동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전북 시군의의회 의장단협의회,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에 참여하여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에 적극적 지원을 건의하고,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사업에 공기업의 참여를 촉구하여 부안의 현안사업들에 대한 대외적 협조를 이끌어 냈다. /부안=이옥수 기자